

2007년 한우 기상대



이종현 · 사무국장
한국종축개량협회

1. 머리말

황금복돼지해(丁亥年 : 정해년)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회원님 가정마다 평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 시기를 두 손 모아 바라면서 언제나 황금복돼지가 집안 가득하셨으면 좋 겠습니다.

난 2006년도는 우리나라 전체가 답답했던 한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미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지투쟁을 하고 미국에 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쇠고기를 한국으로 판매하려고 무한히도 노력하였 으나 안전한 쇠고기를 원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대신하여 정부에서는 강 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음이 개운치 못한 것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욱 전 망이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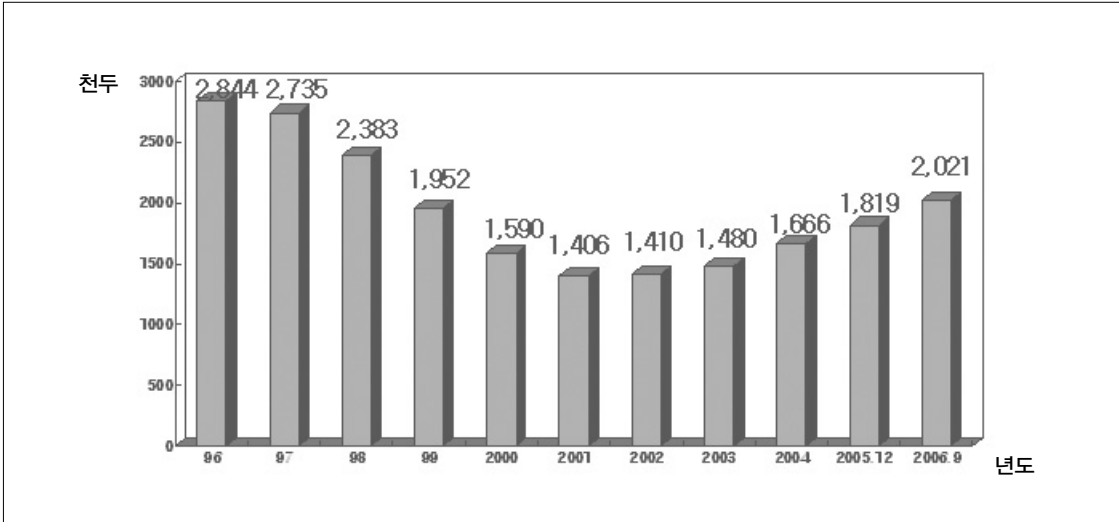
생각해보면 2001년부터 지난 6여년동안이 한우산업에서는 가장 좋은 시기를 누리지 않았나하고 회고를 해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 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헤쳐나아가야만 할 것 같습 니다.

며칠전 방송을 보니 2006년도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표현하는 사자성어 를 발표했는데 그 말이 밀운불우(密雲不雨 : 먹구름이 겹겹인데 비는 내 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불만이 터질 정도로 가득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는 끊임없이 부르셀라가 발생하여 10년, 20년 열심히 개량하여 좋은 소를 땅에 파묻는 농가의 심정은 말로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서 한우가격에 타격을 입히면 어떻게 하

표1. 연도별 한우사육동향



나 하는 걱정도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난 통계와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해를 예측해 보는 것도 회원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2. 한(육)우 사육두수의 변화

한(육)우 사육두수는 쇠고기와 생우의 수입이 개방되었던 2001년도에 1,406천두를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더니 최근에는 증가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50천두~180천여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2006년 9월 2,021천두로 200천여두 이상이 증가하여 최근 6년동안 두수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는 쇠고기와 생우의 수입이 개방되면 한우사육농가가 위기에 처할 것 같은 불안

감 때문에 소사육 농가에서 사육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 최근 몇 년동안의 특징입니다. <표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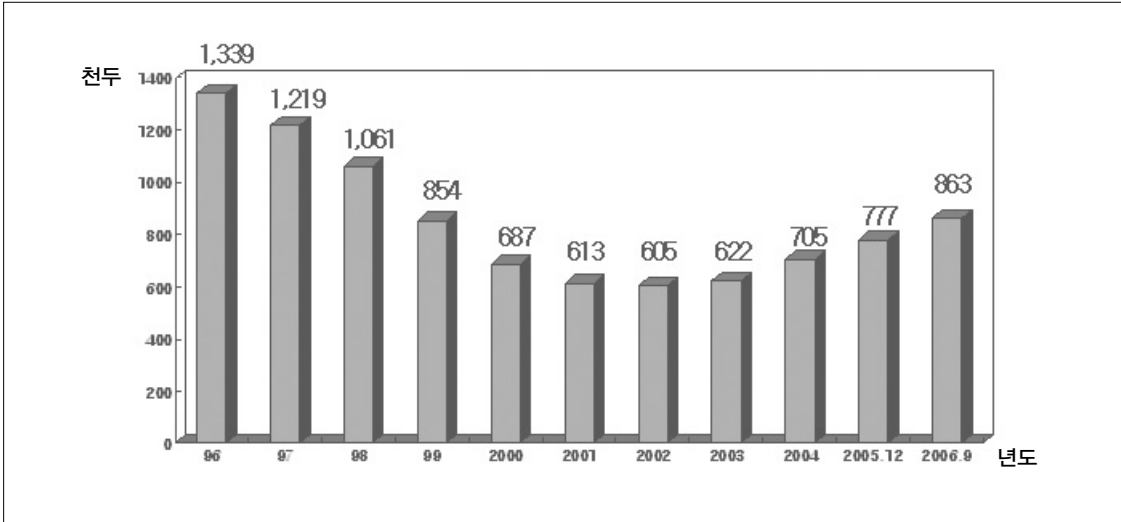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96년 2,844천두 이었던 한우 사육규모의 감소에 의한 반발, 정부의 다산장려금 지원(현재는 몇몇 지방자치단체 시·군), 한우가 격상승으로 인한 한우사육의지 강화를 그 이유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번식 가능한 암소의 사육두수도 증가 하였는데 번식 가능한 암소는 2002년 605천두로 가장 적었다가 2006년 9월에는 863천두로 증가하였습니다. 두수가 감소할 때는 오히려 번식 가능한 암소가 45.2%, 한(육)우 전체는 49.4% 감소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번식 가능한 암소두수의 감소현황이 더 많았었습니다.

번식 가능한 암소의 사육두수는 전체두수보다 1년 늦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 두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표2. 가임암소의 변화



한우의 두수가 증가했던 원인이 가임암소의 증가도 있지만 도축두수의 감소도 있었습니다.

수입개방 이전인 1997~2000년까지는 917천두('97) 1,048천두('98), 923천두('99) 832천두('00) 등으로 많은 한우가 도축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도축두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가장 적었던 해는 324천두로 '98년도의 30.9% 밖에는 도축이 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3참조>

특히 한우두수가 증가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우암소의 급격한 도축감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우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번식

표3. 한우 도축두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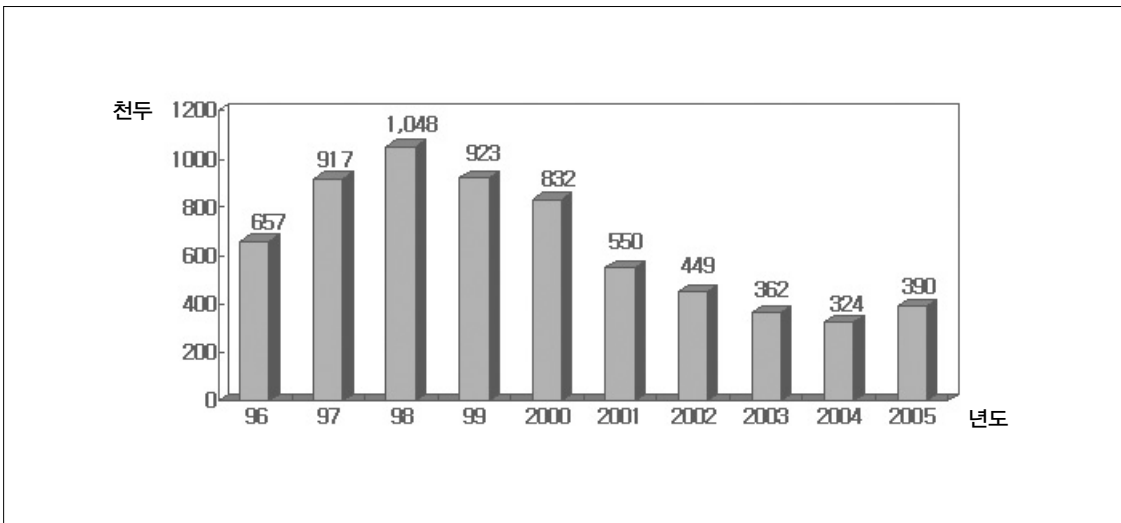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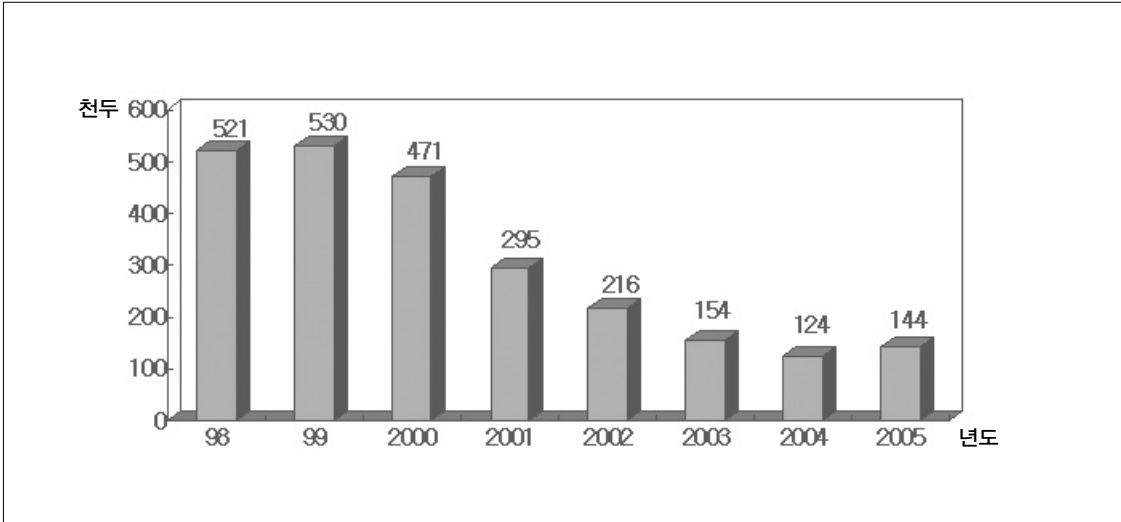


표4. 한우 암소도축두수의 변화



열기의 확산과 함께 한우암소는 우리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주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정말로 우리농가의 보배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부르셀라 질병의 피해를 받아 가면서도 계속해서 암소는 살아남아 우리의 소득을 높여주고 있었는데 2004년에 가장 적게 도축이 되었고 이는 향후 사육두수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수의 증가현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98년도와 최근 소 출하와의 체중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에 출하된 한우를 살펴보면 확실

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2006년 9월 한(육)우의 두수가 2,021천두인데 이 소가 모두 도축되지는 않겠지만 소의 평균체중이 120% 상향 조정되었다고 판단하면 1998년도의 소 두수와 현재의 소 두수는 두수와 관계없이 체중증가(121%)에 의한 물량증가도 되었다는 것이며 $2,021\text{천두} \times 121\% = 2,445\text{천}$ 여두로 환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한(육)우 두수가 2,021천두이지만 과거의 소체중과 단순 비교한 생각이니 단순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한(육)우 두수와 같은 크기로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비교하는 것이며 도축두수는 같더라도 도축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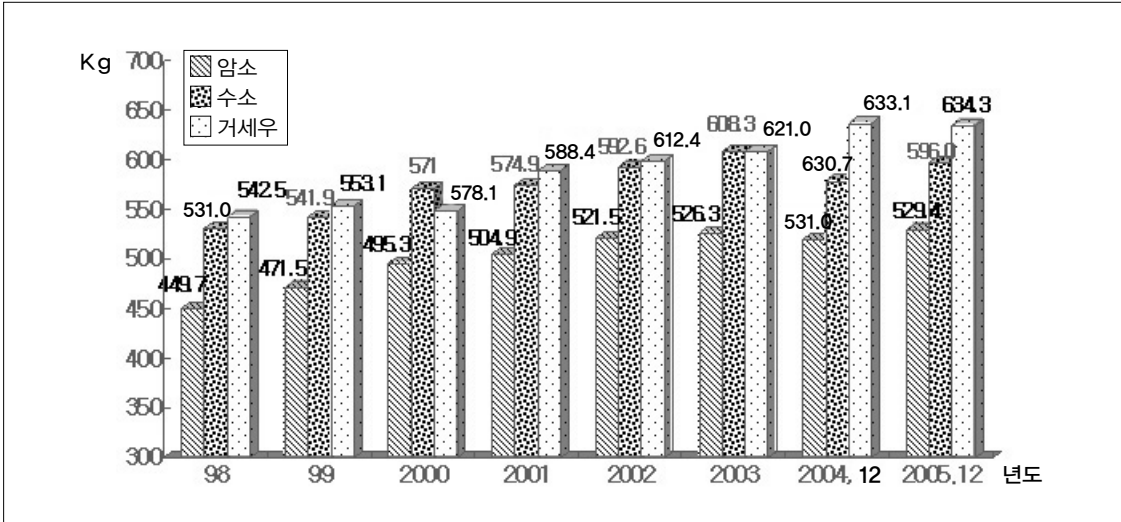
표5. 최근 소 출하 체중추이

(단위 : 두, kg)

구분 \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고
도축두수	64,136	62,923	58,345	39,075	40,410	32,889	33,846	42,671	
생체중	513.0	517.9	548.8	569.0	598.1	608.9	624.0	622.4	
(%)	(100)	(100.9)	(106.9)	(110.9)	(116.5)	(118.6)	(121.6)	(121.3)	

※ 자료 : 2005년 축산물등급판정보고서 중

표6. 연도별 출하제중 :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소의 고기량은 확실하게 20%정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표6〉을 근거로 하여 2005년도 쇠고기 소비량을 추정하여 보면 〈표7〉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수입산은 체중을 알 수가 없어서 한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한우보다 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육우와 비교를 하다가 육우에는 다른 품종들이 많이 있거니와 품종별로 나온 자료가 없어서 한우로 비교를

하였으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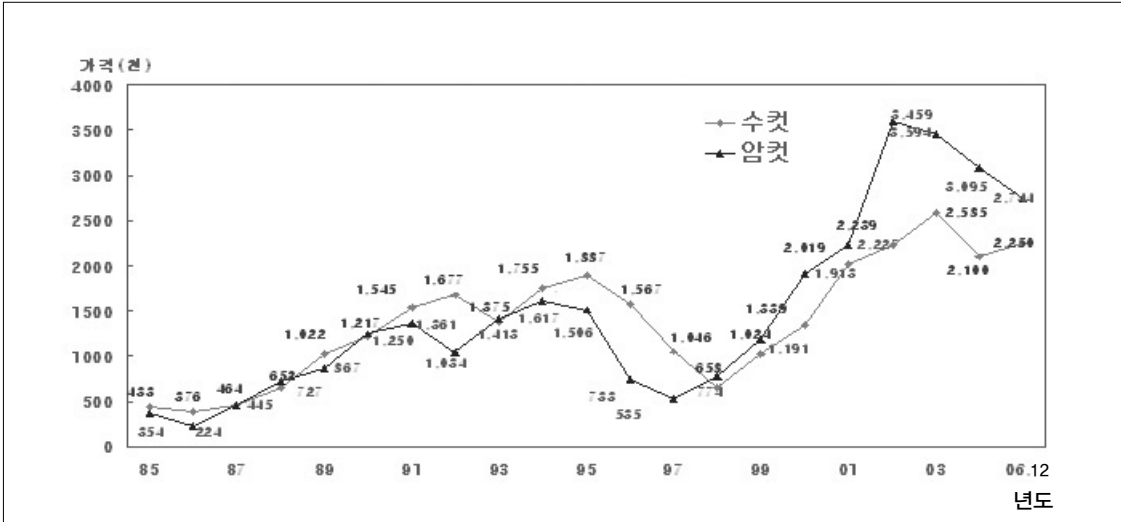
〈표7〉에서 살펴보면 수입산 고기 보다는 국내산 고기를 더 많이 소비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며 이는 2006년도에도 비슷한 경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에는 국내산 쇠고기가 50%이상 점유하기는 힘들 것 같으며 상대적으로 한우고기 소비물량의 범위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표7. 2005년도 쇠고기 소비량 - 추정

품종	도축두수	물량추정	소비물량	점유율(%)	
국내산	한우	391,289	622.4kg0.38(정육율)	92,544	31.7
	젓소	82,609	711.9kg0.38(정육율)	22,347	7.6
	육우	138,553	660.4kg0.38(정육율)	34,770	11.9
	소계	612,431		149,661	51.2
수입산	602,921	602,921(두)/236.5kg	142,591	48.8	
합계	1,215,352		292,251	100	

표8. 연도별 송아지 가격의 추이



3. 한우가격의 변화

최근 한우가격은 1998년까지 하락하여 바닥을 보이다가 1999년부터 상승하여 2002~2003년 정도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우사육농가에서는 현재 가장 민감한 부분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언제 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를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쇠고기로 수입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3차례의 수입통관에서 뼈조각 발견이나 다이옥신 검출로 전량 수입불가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는 수입 쇠고기의 국내반입 여부의 보도가 나올 때 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였던 것이 한우가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서는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라 가격은 하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표8참조>

<표8>은 최근 20여년 동안의 송아지 가격을 1년 단위 그래프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가장 낮았던 1986년과 1997년은 11년만입니다.

미국에서도 11년을 주기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지는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08년도가 그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현상들 중에서 소가격을 결정지를 요인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수입쇠고기 유통업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하려고 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뼈조각 탐지, 육안에 의한 탐지, 다이옥신 검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측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 쇠고기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측에서는 전면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 해당 도축장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내용은 한·미FTA협상 타결시점인 2007년 3월을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하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쇠고기를 수출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우리의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며 미국의 만만치 않은 대응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 들여왔던 쇠고기는 통관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재개된다면 한우가격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2006년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보도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을 보여 왔으며 2006년말 수입유보조치에 따라서 장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8>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8년을 기점으로 5~6년간 상승하였다가 2003년 이후에는 약간씩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5~6년간 가격이 상승하고 5~6년동안 가격이 하락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7년도는 상승시기가 아니라 하락추세의 시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승쪽 보다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육두수의 증가와 체중의 증가입니다.

맨 앞에서 <표1> 살펴본 것과 같이 소사육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육두수가 감소하거나 증가추세가 미미할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나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도에 한우 체중이 513kg이었는데 비하여 2005년도에 622.4kg이라면 평균 120%가 증가하여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1998년도와 같은 체중으로 비교한다면 실제두수보다 더 많은 량의 고기가 생산될 가능성이 염려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요인보다는 상승하지 못할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사료가격의 급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과 소맥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주요 부원료인 대두박은 60%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원료곡물을 주로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주요곡물메이저인 Cargill, Louisdreyfus, Andre, Bunge, ADM, Conagra 등 6개 곡물메이저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옥수수는 미국, 소맥은 호주 및 유럽, 대두박은 브라질 및 인도, 팜박 등 부원료는 주로 동남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옥수수 원료가격 1t당 130 \$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200 \$, 2007년도 1월 선적분은 203 \$이며 대두박도 210~220 \$에서 300 \$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 1년 생산량이 5,700만톤 정

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400여만톤을 수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옥수수 5,700만톤의 약 10%인 570만톤 정도를 에탄올을 만들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할 물량의 옥수수가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서 사료원료의 가격이 매우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원화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달러가치의 상승이나 옥수수 수입이 안 될 경우 대체 사료곡물의 구매여부 등은 축산업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은 편으로 기울게 될 것 같습니다.

4. 향후의 대응방안

그러면 향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아갈 것인가?

아무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원산지, 품종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생산·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는 살아 있을 때나 수입통관 될 때 까지만 원산지나 품종 등이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330㎡이상 대형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2008년부터 실시하게 될 쇠고기생산이력추적제도 실시 등에 따

라서 쇠고기의 원산지, 품종뿐만 아니라 품질까지도 정확하게 표시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확실하게 알고 제가격을 지불하고 구입·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브랜드경영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한우브랜드를 확실하고 착실하게 계속 추진한다면 소비자는 결코 한우고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량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야 하며, 해외의존도의 사료원료확보를 어떻게 하며 생산비 절감, 기술향상으로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가. 쇠고기생산이력추적제도

쇠고기생산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는 소의 생산·이동·도축·가공·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살아있을 때는 질병발생시 차단·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개량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쇠고기를 소비하는 구매자도 확실한 이력이 있는 쇠고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한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에 대해서 개체별로 유일한 식별번호(ID)를 부여하고 귀표 등을 장착하여 소의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DB화하여 관리하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을 인터넷이나 전산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하며 식육(고기)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표9. 브랜드별 사육규모 및 물량공급

브랜드별	사육규모		물량공급		브랜드 출하량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1	1,805	2,270	888	1,037	645	580
2	1,514	3,043	482	757	388	545
3	3,307	4,190	242	830	125	506
4	10,798	7,863	2,225	2,338	483	1,636
5	1,895	2,009	700	1,612	480	1,080
6	3,512	5,101	618	1,234	168	815
7	3,725	4,555	1,031	1,738	521	1,234
8	2,375	2,031	494	641	276	358
9	2,451	3,634	677	1,054	495	706
평균	3,487	3,905	817	1,249	396	828
비고	100	100	23.4	32.0	4834	66.3

표10. 브랜드별 혈통등록 현황

브랜드별	사육규모(두)	혈통등록두수(두)	비율(%)
1	3,621	1,228	33.9
2	1,809	653	36.1
3	1,514	1,089	71.9
4	2,045	1,591	77.8
5	3,307	1,250	37.8
6	10,798	4,891	45.3
7	4,000	1,656	41.4
8	1,895	8,000	42.2
9	3,512	2,708	77.1
10	3,725	2,641	70.9
11	5,500	1,298	23.6
12	5,173	4,578	88.5
13	2,375	2,140	90.1
14	2,451	1,370	55.9
계	51,725	27,893	53.9
평균	3,695	1,992	53.9

현재 일부 유명브랜드와 시·군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각도 전체(1~2도)와

1개도당 5~6개시군(브랜드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본 제도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한우산업의 발전과 소

표11. 히타우 비육밀소의 생산지와 지육성적(거세우)

(단위 : 두, kg)

연도	구분	두수	출하율량	지육중량 (kg)	BMS (근내지방도)	BSC (육색)	우둔군 BMS	지육단가 (엔/kg)	히타우 출현율(%)
2005	기후현산 밀소비육	2,148	27.8	431.1	6.43	3.86	5.00	2,392	95.8
	그 외 지역 도입밀소	2,342	28.1	433.8	6.24	3.93	4.96	2,340	95.0
	계	4,490	27.9	432.5	6.33	3.90	4.98	2,365	88.1
2006	기후현산 밀소비육	2,145	27.6	429.2	6.30	3.82	5.16	2,265	93.0
	그 외 지역 도입밀소	2,630	28.1	432.3	5.84	3.96	4.69	2,169	92.0
	계	4,775	27.8	430.9	6.05	3.90	4.90	2,212	93.0

※ 자료 : 2006년 기후현 축산연구소 히타우 연구부(2006년도)

표12. 시판쇠고기의 이회학적 특성

구분	연도	다즙성	풍미	종합평가	비고
호주초식	3.4	3.0	2.8	2.9	연도 : 5(연함)~1(질김) 다즙 : 5(습윤)~1(딱딱함) 풍미 · 종합 : 5(좋은)~1(나쁨)
미국곡물	3.7	3.5	3.2	3.5	
홀스타인(B2)	3.2	3.3	3.4	3.5	
화우(A3)	4.2	3.9	4.4	4.5	

※ 자료 : 일본 효고현 북부농업 기술센터

비자보호를 위해서 현실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제도의 본격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 살아있는 소에 대해서는 광우병, 구제역 등 각종 질병발생시 환축의 이력을 추적 또는 소 급하여 동거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 가축개량 · 경영개선 등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혈통 · 산육능력 · 사양관리 정보를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관리 · 활용할 수 있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한우고기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위생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로 국내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소개체식별제도 구축을 위해 2004

년까지 모든 소에 귀표를 장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부터 모델사업을 실시하던 중 2001년 9월 광우병(BSE)이 발생하여 2001년 10월부터 「가축개체식별 긴급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10월~2002년 6월까지 모든 소(약 450만두)에 귀표장착을 완료하였으며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농가에서 소의 출생 및 이동, 도축신고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하며 도축이후 가공, 판매, 음식점에서 소개체식별번호 표시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토록하고 쇠고기 구매 및 판매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시행은 독립행정법인「가축개량센터」를 설립하여 총괄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정부소속기관을 독립행정법인화 하였으며 센터의 담당직원은 약 60여명으로 모두 공무원입니다.

또한 지방농정사무소(180개)에서 640여명의 공무원을 담당직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기관이 본 사업을 주도하고 각 사업시행 주체(개량, 이력제도, 방역, 등급판정 등)에서는 개체식별 번호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 활성화에 따라 일본산 화우의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생산·소비에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본 제도만 확실하게 구축된다면 한우산업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 한우브랜드 추진

2001년도부터 쇠고기와 생우의 수입자유화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우사육농가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믿음을 얻기 위함과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우브랜드 활성화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산자도 외국의 쇠고기에 대항하여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브랜드사업을 통한 품질향상과 안전한 한우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생산자, 축협, 시·군청 등이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5년말 232개소의 한우브랜드가 탄생하였는데 1명의 농가브랜드에서부터 2,000명이상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 지역적으로 읍면별, 시·군별, 시·도단위 광역브랜드까지 지역적 인적구성요소가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브랜드가 확실하게 살아남으려면 품질의 균일성을 위한 방안과 고품질한우고기생산, 물량공급, 위생·안전성, 브랜드관리(홍보) 등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확실한 브랜드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우 고품질 생산에 기여하는 항목을 크게 둘로 나누면 「유전적개량」+「환경개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전적 개량에 기여하는 씨암소, 씨수소 모두에서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소에서 생산된 비육 밀소를 가지고 비육시켜야 할 것이며 이는 혈통에 따라서 능력이 어느 정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개선 중에서는 거세, 사양관리기간(비육기간), 사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 출품된 한우를 평가해보면 출하우의 씨수소에 따라서 1두당 300천원이상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육중간에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비육용 송아지를 선발할 때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 25개 이상의 축협에서는 이미「혈통 등록우 경매시장」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때 거래되는 송아지 가격도 평균가격보다 100천 원에서 300천원이상 높게 거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해도 능력이나 혈통의 차이에 따라서는 500천원이상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혈통의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은 결국 소득향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며 아주 좋은 혈통의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은 결국 소득향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며 아주 좋은 혈통의 송아지는 평균가격의 2배 이상이나 높게 거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우브랜드는 아직 사육규모와 브랜드 출하규모가 적은 형편입니다.

적어도 브랜드라고 한다면 2~3천두 규모의 브랜드 경영체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브랜드의 현실입니다.

물론 1개 농가에서 직접 사육하며 정육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유명한 브랜드라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혈통등록의 비율도 24%에서부터 90%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균일한 한우고기가 생산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향후 같은 계통의 혈통에서 생산된 한우고기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비슷한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하는 일본의 기후현지역에서는「히타큐」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의 1년 출하두수가 4,000두가 넘으며 브랜드 출현율은 9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현산의 밀소로 비육시킨 것이 출하월령의 단축, 근내지방도의 향상, 우둔내 근내지방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우브랜드는 등심의 근내지방도만 한정하는데 히타큐브랜드는 우둔에도 마브링이 들어간다고 하며 이는 씨수소에 의한다고 합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씨수소 중 야스후쿠 안복(安福)이라는 자손이 4만여두나 생산되었으며 경제적 인 효과는 100억엔(약 800억여원)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근내지방도(고품질) 규격이외에도 이화학적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황토탄우」「약초한우」「숯한우」등의 기능성 브랜드가 있는데 그 소가 자라는데 건강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기능성한우로서 인정은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과 같이 등급의 좋고 나쁨 이외에 「풍미」「다즙성」「연도」등 고기의 특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와 브랜드에 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소득향상에 좀더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은 이외에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안 중 사료의 적정한 구입이나 자가생산, 산차 증가에 의한 번식암소의 생산단가 조절, 1년 1산에 의한 경영상 이익발생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하여도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아가면서 회원여러분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이루시도록 바라겠습니다.

한우는 오직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입니다. 유전자원 보호와 함께 한우개량에 박차를 가하여 산업발전과 경영이익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